

행정 전문가 VS 40대 '젊은 피' 재격돌

■구청장 입지자

송광운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 가운데 '40대 젊은피'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민주당=송 청장과 이형석 전 청와대 비서관, 남평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교육원장, 오형근 민주당 보건복지특위 부위원장 등이 출마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송 청장은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행정관료 출신으로, 지난 4년 동안 무난하게 구청장을 맡아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청장은 재임기간 중소기업 살리기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상당한 성과도 이뤄냈다. 민선 4기 동안 174회 수상과 61억 원의 상 사업비를 받았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동네 한바퀴 주부 순찰단'과 '북구 비전 365 오피니언 그룹' 등 주민 주도형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나눔행정 및 미래 복지·보건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주민자치 메카 도시 구현 등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다.

송 청장은 최근 재선 출마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청장의 재선 움직임에 강력한 대항마로 나선 후보는 이형석 전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송 청장과 '한판' 맞붙어 석패를 당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광주 북구청장 입지자

(가나다 순)



송광운 재선 도전에 이형석 '4년만의 설욕' 버려

남평오·오형근씨도 패기 앞세워 '공천경쟁' 가세

서는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은행 노조위원장 겸 광주시의회 의장,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관을 지낸 이 비서관은 정치·경제·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폭 넓은 중앙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40세에 전국 최연소 의장을 지내면서 광주시의회 의회 혁신적 개혁을 통해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만드는 데 기여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은 특유의 친화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일찌감치 지역주민들과 접촉을 확대해 가며 '표밭 다지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북구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자치구와 마찬가지로 대도시 정책에 묻혀 자치구만의 독자 브랜드를 만들어 내지 못

하고 있다"면서 "이성적인 도농복합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북구의 강점을 살리면서 경제·문화·민주·인권 특구의 자족형 혁신 브랜드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평오 교육원장도 지난 19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김근태 전 의장 보좌관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앙 인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북구지역 기초의원들과 종교계, 시민단체 등과의 접촉을 통해 지지 기반과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남 원장은 "북구는 민선 17기부터 민선 3기까지 전국 자치단체 중 참여형 주민자치의 틀을 만들고 올바른 지방자치의 전형을 창출한 시기였지만, 민선 4기 송 청장의 북구 행정은 자치행정이 실종

된 무사안일의 행정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송 청장에 직격탄을 날리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는 "이제 북구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소통의 리더십, 북구 행정력의 창조적 결집과 지역 정치인과의 적극적 협력으로 광주를 선도하는 자치구, 전국의 모범적인 자치구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기에 오형근 부위원장도 전문성과 참신성을 내걸고 출마 의지를 밝히고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현직 성형외과 원장(의화박사)이자 건축학사라는 특이한 경력이 있는 오형근 부위원장은 지난 18대 광주 북갑 민주당 국회의원 경선에도 출마했다.

그는 "민선 4기 구청방향이 현상유지에 급급한 관료주의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한 뒤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전 주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민주주의의 기초를 확립,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오 부위원장은 민간주도의 경영 혁신과 봉사정신을 행정에 접목시키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사람 자신이 책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서세일(66) 북구담합 운영위원장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지사장과 광주시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는 등 폭넓은 사회·정당 활동을 한 경험을 내세우고 지지층 확보에 나서고 있다.

10여 년간의 공직생활과 17대 대통령선거 대책위 시장 부위원장 경험에 있는 서위원장은 "물론 한나라당이 광주에서 지지 기반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인 만큼 예산 확보 등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6개 선거구에 자천타천 20명 출사표 4선거구 6명 '한판대결' 최대 격전지

■시의원 입지자

민주당에서만 6개 선거구에 20여 명의 후보가 얼굴을 내밀고 있어 3대1 이상의 치열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북구 선거구가 1곳이 더 늘어나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특히 4선거구(임동·용봉동·오치1·2동)는 전우근 현 시의원 등 6명의 후보가 광역의원 한 자리를 놓고 '한판'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돼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1선거구(중흥 1·2·3동, 중앙동, 신안동)는 현재까지 진선거 광주시의회 부의장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후보가 없다. 따라서 진 의원의 '재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에서 늘어난 2선거구(우산동, 문흥1·2동)는 조오섭 중앙당 부대변인이 일찍 출사표를 던져 놓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3선거구(중앙동, 문화동, 두암1·2·3동, 석곡동)는 김후진 현 광주시의원에 맞서 김태훈 북구의회 의장과 마광민 북구의회 도시교통위원장 등 구의원 2명과 문상필 북구 장애인복지회 이사장이 출사표를 던지고 '한판'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4선거구(임동, 용봉동, 오치1·2동)는 전우근 현 광주시의원의 '재선' 도전에 최희동 전남대 총동창회 사무총장과 흥인화 북구의회 의원, 오우섭 광주경실련 자치분권 위원장 등 구의원, 시민단체, 당직자 등 6명의 민주당 후보가 광역의원에 도전한다.

따라서 북구 4선거구가 이번 광역의원 선거 중 가장 치열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5선거구(운암1·2·3동, 동림동)에는 조호

■서구 광역의원 입지자

선거구	이름	경력
1	진선거	광주시의회 부의장
2	조오섭	민주당 부대변인
3	김후진	시의원
	김태훈	북구의회 의장
4	이문성	북구의원
	문상필	북구 장애인복지회 이사장
5	전우근	시의원
	최희동	전대 총동창회 사무총장
	오우섭	광주경실련 자치분권위원장
	김동찬	북구의회 운영위원장
6	이철민	시의원
	김용정	김재균의원 비서관
7	이은방	북구의원
	김조순	전 민주당 광주시장 부위원장

권 현 광주시의원을 상대로 김동찬 북구의회 운영위원장과 오광록 전 광주·전남 연합상임 부회장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알려졌다.

6선거구(삼각동, 일곡동, 매곡동, 건국동)는 이철원 현 광주시의원에 맞서 김병도·이은방 현 북구의회 의원, 김용정 김재균 의원 비서관이 출사표를 던지고 표 다지기에 나섰다.

이외에도 민주당 내 경선 규정이 정해지면 광역의원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후보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구 광역의원 선거는 경선 과정부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쟁점 & 변수

북구는 첨단 산업단지과 본촌산업단지를 품은 광주의 경제 중심축이다. 따라서 북구에 출마예정인 후보들은 모두 경제 활성화를 제1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경제 살리기'가 북구의 최대 선거 쟁점이 될 것이다.

송광운 청장은 연임되면 기업유치활동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경영활동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형석 전 비서관은 북구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행정 분권만이 아닌 재정 분권을 위한 법률 개정을 이끌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평오 교육원장은 첨단지역에 미래발전의 동력산업, 연구·개발업체의 유치, 국립심혈관센터 유치를 성사시켜 북구를 바이오

① 강기정·김재균 의원 선택은?

② 舊 민주계-舊 우리당 힘겨루기

밸리, 첨단미래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오형근 부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첨단 산업단지 2단지와 함께 본촌산업단지를 첨단산단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을 공약에 포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변수는 강기정, 김재균 2명의 국회의원이 단일후보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다. 따라서 후보마다 김삼과 김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주민 접촉을 통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위해 기반 다지기 보폭을 넓힐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각 후보와 두 의원 간의 관계구도를 보면 먼저 송 청장은 구 민주계 출신인 반면, 이 전 비서관과 남 원장은 두 의원과 인연이 깊다. 또 기존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중앙당과 지역 사회 내에서 물밑 행보를 펼치고 왔기 때문에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북구는 첨단 산업단지(왼쪽)와 본촌산업단지를 끼고 있어 광주의 경제 중심축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 최대 쟁점은 '경제살리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성 헤어 기능장비 **大山프리모닝네기발**

타사제품 보상판매 **남성제품** NAVER BEST2010

SBS·KBS 「사람세상」 발명

가발

초슬림!! **각 품 50만원~**

귀여운 분위와 인기를 높여주는 **영양분 충전자가 되었습니다.**

대표전화 / 02-673-5808, 02-673-5822

원장 이수재 011-600-9055

특하게 배워 한권으로 공수따다!

신권 **승부**

대한민국 **1기**

대한민국 **2기**

대한민국 **3기**

대한민국 **4기**

대한민국 **5기**

대한민국 **6기**

대한민국 **7기**

대한민국 **8기**

대한민국 **9기**

대한민국 **10기**

대한민국 **11기**

대한민국 **12기**

대한민국 **13기**

대한민국 **14기**

대한민국 **15기**

대한민국 **16기**

대한민국 **17기**

대한민국 **18기**

대한민국 **19기**

대한민국 **20기**